추위 강한 '꽃'들이 뜬다

화훼농가, 난방비 덜 드는 저온성 작물 재배 확산

▲파비아 ▼리시안셔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새로운 화훼품종 재배가 늘고 있다.

강진·해남군 등 전남지역 화훼 농가들은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부담이 큰 고온성 작목 대신 저온성 화훼나 아예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 품종 재배로 활로를 찾고 있다.

강진에서는 저온성 화훼작물인 '스타티스(Statice)'를 비롯해 수국, 작약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첫 재배돼 출하를 시작한 스타티스는 난방 적정온도가 12도로 장미보다 기름값이 60%이상 절감돼 10a당 1천만원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물을 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모양과 색이 유지돼 화단이나 꽃꽂이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수국도 난방비 부담이 적은데다 일손이 적게 들어 화훼농가들이 선호하면서 전국 생산량의 90%가 강진에서 출하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는 수선화과인 '알스트로메리아'와 백합 종류인 '파비아', 꽃도라지(리시안셔스)를 재배하고 있다.

9월 초에 심어 11월 초에 수확하는 '파비아'는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아 ㎡당 수익이 10만원선으로 일반 화훼보다 높다. 종자(球根) 값도 개당 300원선으로 백합의 30%에 불과하다.

카네이션에서 '알스트로메리아'로 재배작목을 바꾼 민재평(49·해남군)씨는 "1년중 1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8~10도로 난방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며 "화훼류중 수확량이 가장 많아 수익도 늘리고, 구근이 개당 2만원에 달하지만 10년간 생산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경유) 가격은 현재 ℓ당 750선으로 올 초 590원에 비해 25% 이상 올랐으며 지난해 초 400원대에 비해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송기동기자 song@

▲스타티스 ▼알스트로메리아

백양사 '백학봉' 명승지 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장성 백양사 백학봉<사진>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3일 백학봉 일대인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 115-1번지 등 31필지 58만4천364㎡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백학봉 일대는 백양사 대웅전과 쌍계루에서 바라보는 암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내장산과 함께 단풍이 유명하다.

또 천연기념물 제 153호인 백양사 비자나무를 비롯한 1천500여 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백학봉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화순 모후산 '산약초 단지'로 조성

郡, 18억 들여 산양삼·맥문동·더덕 등 재배

화순군이 산약초 집단 재배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화순군은 고려인삼 시배지로 알려진 모후산 일대에 4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710ha 규모의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군은 지난 봄철에 단기소득 작목인 더덕 및 도라지 종자 2천100ℓ를 140ha에 파종했다. 또 가을철에는 모후산 주변 570ha에 맥문동 등 약초 142만여 본을 식재했다.

화순군은 13억8천여만원을 들여 모후산 일대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 대표 특산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화순군은 대단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정지역인 지역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마량 공원에 '돌하르방' 세운다

강진-제주, 공출마 인연 교류 활성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 2기가 오는 7일 강진군 마량항 중방파제 수변공원에 세워진다.

마량(馬良)항은 이름이 상징하듯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공출한 제주마(濟州馬)를 실은 배가 육지에 도착하는 종착지로 제주와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강진군과 제주시는 이 같은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길이 1.6m, 2m의 돌하르방 2기를 제작해 마량항에 세우기로 했다.

또 공출마를 실은 배의 출발지였던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이 마량면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는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도 고대해양항행탐험연구소와 강진군 문화원이 통나무로 '탐진 탐라호'를 제작해 제주시 화북항에서 여서도, 완도를 거쳐 마량항에 이르는 150㎞의 고대 뱃길 탐험에 나서기도 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산구 영어학습센터 오늘 개관

신가동 본향교회내

광산구 영어학습센터가 신가동 본향교회내에 4일 개관한다.

광산 영어학습센터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관심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동화로 배우는 영어 ▲회화 기초·중급 ▲문법 기초·중급 ▲영어 발표력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목당 프로그램은 주 1회 개설되고, 월 수강료는 1~2만원으로 저렴하며 영어 뿐만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회화도 배울 수 있다.

광산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자녀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내년 3월께 첨단·월계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월계초등학교에도 영어학습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문의 (061-959-0005)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여수 여도초교 입학 제한 없앴다

인근 주민 자녀도 허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여도초등학교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여도초교는 3일 "2008 학년도부터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에 한해 입학을 허가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방침을 바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도초교는 내년에 35명 규모의 한 학급을 신설한다.

지난 1980년대 초 설립된 여도초교는 지난 달 산단 입주 기업들의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자녀에 한해 입학을 허가하기로 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숲도 가꾸고 사랑도 나누고

담양군 땔감나무 나눔운동

복지시설 등에 200t 전달

담양군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불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땔감나무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

담양군은 지난 가을부터 1천110ha의 산지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벌여 발생한 목재 자원 200t을 사회복지시설과 독거 노인 등 74세대에 전달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구례 여성·사회단체 '김장 담그기'

구례군 여성 사회단체들이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김장 담그기에는 새마을부녀회와 한국부인회, 전국 주부교실, 적십자 부녀봉사회 등 18개 여성단체와 구례 제일교회·중앙교회 여전도회 등 7개 종교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했다.<사진>

구례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번에 담은 배추 6천500포기와 무 1천300개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740세대에 전달했다.

한편 구례군 여자소방대에서는 일본·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여성 20명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새얼굴

"농촌학생에 희망주는 교육 펴겠다"

강 병 수 구례교육장

"농촌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강병수(55) 구례교육장은 "지역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농촌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곡성 출신인 강 교육장은 공주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순천이수중 교감, 고흥 점암중 교장, 도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이금숙(51)씨와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독서.

/구례=김동호기자 dhkim@